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과 만주에서의 행적

신미삼* · 노상래**

|| 차례 ||

1. 서론
2. 국책 선전, 표상으로서의 만주국
3. 만주 이주의 계기와 만주에서의 행적
4. 만주국 이념에의 경도와 만주 개척의 서사화
5. 정세 변화와 자기 점검
6.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이석훈이 일제 말기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중어 소설을 분석하고, 1943년 8월 이후 만주로 이주한 이석훈의 만주에서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만주를 소재로 하여 조선에서 발표된 소설에서는 당대 만주와 만주국을 바라보던 일제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만주는 만주국 건국을 전후하여 각각 혼돈과 낙토의 공간으로 표상되어 있고, 오족협화와 민족협화라는 건국이념에 무색하게 선만일여와 내선일체의 논리가 통용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황민화 정책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이석훈은 1943년 8월 만주로 이주해 버리는데 이는 녹기연맹에서 내선일체의 모순을 절감한 그가 조선보다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게다가 숙부가 거주하고 있고 자신에게도 친숙한 만주에서 새롭게 생계를 찾기 위해서였다. 만주로 간 이석훈은 조선에서와 같이 노골적으로 일본주의를 드러내거나 징병을 독려하는 황민문학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만

* 제1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에서 하나의 ‘에스닉’으로서 살아가야했던 만큼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경도되었고 만주 개척 문제도 소설로 형상화하였다.

만주의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그는 점차 일본의 패망 기운을 느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정세 변화는 뒤늦은 자기 점검을 가져온다. 그의 역사적 균형 감각의 회복은 이석훈의 필명으로 여겨지는 해방 후 이금남의 소설 『異鄉』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45년 3월 이후의 절필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주제어 : 만주국, 낙토, 협력, 분열, 민족협화, 오족협화, 개척, 자기 점검

1. 서론

이석훈은 1943년 녹기연맹에서 탈퇴하여 “장춘長春으로 가 염상섭이 국장으로 있던 《만선일보滿鮮日報》에서 객원 근무”¹⁾를 하였으며, 해방 역시 장춘(신경(新京))에서 맞는다.²⁾ 이석훈의 만주행에 관해서는 몇몇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만주 이주 후의 행적과 만주 이주 전과 후의 작품 세계의 차이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석훈의 만주행에 관해 윤대석은 조선에서 내선일체를 부르짖던 녹기연맹에서 활동하던 그가 도리어 그 곳에서 내선일체의 균열을 맛보게 되자 내선일체의 모순을 만주족에게 전가하기 위해 만주로 이주했다고 하며, 이를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 『血緣』을 중심으로 분석한다.³⁾ 하지만 이석훈의 만주행을 만주족에 대한 식민자로서의 군림만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만주로 이주한

1) 김용성, 『작가 연보』, 이석훈 저·김용성 편, 『이주민 열차(외)』, 종합출판 범우, 2005, p.446.

2) 李石薰, 『告白』, 『白民』, 白民文化社, 1947. 1, p.46.

3)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2, pp.130-132. 그 외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p.33.도 참고.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진영복 역시 일제 말기 만주와 관련된 이석훈의 소설을 분석하지만 대상으로 삼은 3편(『여행의 끝(旅のをはり)』, 『북으로의 여행(北の旅)』, 『善靈』) 중 두 편은(『여행의 끝』, 『북으로의 여행』) 만주 이주 전에 발표된 소설이므로, 이석훈의 만주에서의 행적과 문학, 그리고 그의 사상 및 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⁴⁾ 서승희는 사소설 경향의 이석훈의 일제 말기 이중어 소설을 분석하며 『여행의 끝』, 『북으로의 여행』, 『善靈』 등을 다루지만, 『善靈』을 이석훈의 마지막 작품으로 언급함으로써 『善靈』 이후에 발표된 『處女地』를 빠뜨리는 아쉬움을 남겼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일제 말기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李大將』, 『북으로의 여행』, 『血緣』, 『善靈』, 『處女地』)⁶⁾을 분석하여 만주 이주 전과 후에 발표한 소설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을 ‘만주 이주 계기’와 연관하여 살펴보고, 만주에서 발표한 그의 이중어 작품을 통

4) 진영복,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제 담론과 균열 —이석훈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第58輯, 한민족어문학회, 2011. 또한 진영복은 조선 문인들의 만주 여행서사를 통해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논한 글에서도 이석훈을 논하지만, 논문에서 다루어진 이석훈의 작품 중 본격적인 만주 여행서사로 들 수 있는 것은 ‘만주 이야기’ 한 편에 지나지 않는다. (진영복,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3호, 대중서사학회, 2010. 6.)

牧洋, 『旅のをはり』, 『綠旗』,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3. 6.(집필: 1943. 5. 9), 牧洋, 『北の旅』, 『國民文學』, 人文社, 1943. 6.(집필: 1943. 5. 12), 牧洋, 『善靈』, 『國民文學』, 人文社, 1944. 5.(집필: 1944. 4)

5) 서승희, 『일제말기 소설과 ‘자기’의 정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6) 일제 말기 간도를 시찰(1942. 12. 27~1943. 1. 5)한 후 만주를 배경으로 발표한 이석훈의 소설은 총 4편이지만(『李大將』, 『여행의 끝』, 『북으로의 여행』, 『血緣』) 이중 『여행의 끝』은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했다. 사소설적인 『여행의 끝』은 만주를 배경으로 하지만 여타의 작품과는 다르게 만주에 관한 작가의 시선보다는 시국 협력에 대한 주인공의 양가적 감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해 만주에서의 행적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석훈의 만주 이주 이후의 행적과 문학의 특징, 사상의 변화 과정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망실된 소설사의 한 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책 선전, 표상으로서의 만주국

만주를 배경으로 한 이석훈의 소설로는 일찍이 『조선일보(朝鮮日報)』에 발표한 조선어 콩트 『墮落한天使』(1932. 5. 6)와, 『경성일보(京城日報)』에 발표한 이중어 소설 『유에빈 지나인 선부(ユエビン支那人船夫)』(1932. 11. 13, 15~18, 20, 22), 그리고 이를 번역 및 축소한 『『로잔』의死』(『黃昏의노래』, 漢城圖書株式會社, 1936) 등이 있다. 주인공 혹은 화자가 모두 만주를 방랑한다는 점에서 이석훈의 만주 방랑 시절과 관련 있는 작품이다.⁷⁾

하지만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하기(1943. 8) 전 만주를 본격적인 소설의 무대로 설정하여 창작한 소설에는 우선 『李大將』을 꼽을 수 있다. 일본어 단행본 『쑥섬 이야기』(普文社, 1945)에 수록되어 있는 『李大將』의 발표년도는 알 수 없지만, 이석훈이 간도 시찰로 “간도 지방을 여행했을 때, 어딘가에서 조금 들은 이야기에서”⁸⁾ 창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1943년 작으로 여겨진다.⁹⁾ 이석훈의 간도 시찰은 간도에서 살아가는 황민화된 반도 동포의 생활 실태와 증산보국에 정신하는 모습을 일반에게 소개하기 위해 간도

7) 실제로 이석훈은 “스물두살의 初가을”(1928) 가정의 파산으로 “定處없는 放浪의 나그네” 길로 내몰려 “南滿의 大東溝” 등을 방랑한 바 있다. (李石薰, 『金剛山과나』, 『中央』, 朝鮮中央日報社, 1935. 7, p.64.)

8) 牧洋, 『あとがき』, 『蓬島物語』, 普文社, 1945, p.294.

9) 시라카와 유타카 역시 『李大將』의 발표년을 1943으로 추측한다. (白川豊, 『李石薰(牧洋) 作品考 - 資料整理を中心に -』, 『朝鮮學報』 第160輯, 1996. 7, p.188.)

성에서 기획된 것이었다.¹⁰⁾ 이에 “화려한필치로 선만일여(鮮滿一如)에 기여하는 작품을 쓸 것”¹¹⁾이라는 부응에 발맞춰 발표된 작품이 『李大將』인 것이다. 『李大將』은 간도 동포의 박해사를 소재로, 특히 만주국 건국 이전 “치안 확립을 위해 꺾기한 시정의 영웅”(p.187.) 이춘성(李春城)의 활약상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한다.¹²⁾

간도의 “M…촌”에 사는 60을 넘긴 이춘성은 공산비 토벌의 혁혁한 전과로 그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이 대장’으로까지 불리는 인물이다. 만주사변 당시 “장쉐량(張學良)의 패잔병”들은 “황군의 토벌”(p.191.)에 쫓겨 간도에 들어오는데, 이미 ‘공산주의자들의 폭행’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간도 주민들은 반군의 내습으로 더욱 불안하고 혼돈된 시대를 맞게 된다. 산악지대인 간도에서 재목상을 운영하던 이춘성은 관변(官邊)으로부터 별채를 허가받아도 산야의 공산비(共產匪)가 이를 금지하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공산비와 타협한다. 장쉐량의 시대는 이중 삼중의 과세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던 시대로 묘사되어 있는데, 세금 납부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에 길들여진 만큼 이춘성은 세금 납부로 공산비와 타협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호구지책으로 마련된 세금 납부는 전산(全山)의 나무에 시세가 정해지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고, 심지어 공산비는 현금 대신 쌀, 소금, 성냥, 의복 등 ‘물자’로의 세금을 요구하여 간도의 조선인들은 매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공산비에게는 세금 납부는 조선인 동료의 밀고에 의해 헌병대에까지 알려지고, 결국 이춘성은 공산비와 ‘통비(通匪)’

10) 『躍進間島를紹介 - 間島省서半島作家들招請 -』, 『매일신보』, 1942. 12. 27.

11) 『北邊守護의同胞들 敢闘의精神에感激 - 間島訪問의半島文人一行延吉到着 -』, 『매일신보』, 1942. 12. 29.

12) 이춘성은 허구의 인물이다. 이석훈은 그를 실존 인물로 여긴다면 실화가 된다면 주의를 당부한다. (牧洋, 『あとがき』, 『蓬島物語』, p.294.)

했다는 죄목으로 연행된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는 2~3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지만 이춘성은 이를 계기로 분기한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와서 염치도 없이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아. 이 간도는 우리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개척해서, 옥토로 만들었다. <...> 이것은 우리들의 땅이다. 마침내, 나는 한 목숨을 던져, 작게는 우리들의 자존 자위(自存自衛)를 위해, 크게는 만주건국을 위해, 총을 잡고 일어설 결심을 한 것입니다.¹³⁾

이에 이춘성은 200명 정도의 ‘조선인간도의용대’를 조직하고 용정에 있던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무기도 공급받아 맹훈련을 한다. 그리고 ‘경찰특 별토벌대’와 함께 반군(反軍) 토벌에도 가담하게 된다. 이춘성은 목재상인 만큼 산길을 꿰고 있어 적비의 통로를 차단하거나 적의 의표를 찔러 큰 공을 세운다.

한편, 이 대장에게는 똑똑하고 어여쁜 외동딸 ‘혜련(惠蓮)’이 있었는데, 그가 ‘조선인간도의용대’를 조직할 무렵 행방불명이 된다. 그런데 공산비와의 전투 중 혜련이 적의 대장으로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딸이었지만 간도의 치안을 위협하는 공산비의 대장으로 활동하는 이상 적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다.¹⁴⁾ 혈연보다 동포의 안위를 우선시한 그

13) 牧洋, 『李大將』, 『蓬島物語』, p.195.

14) 여기서 만주에서의 재만 조선인의 혼종적 위치가 발견된다. 즉 재만 조선인 중에는 혜련과 같이 중국의 해방에 기여하여 “중국인에 대한 施惠者적 성격”을 띤 자도 있었고, 이춘성과 같이 일본 식민 당국에 동조해서 중국인에게 피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조선인 전체가 그 代價를” 치르는 가해자적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또 중국인과 일본인의 세력 다툼에 끼여 양자 모두로부터 비난과 멸시·탄압을 받은 피해자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尹輝鐸,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는 공비와의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결국 혜련은 자신의 불효를 용서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한다. “만주 건국의 혼돈한 시대”는 이로써 막을 내리고, “만주국은 쑥쑥 발전하여”(p.204.) 이춘성의 총락도 평온한 시대를 맞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만주가 만주국 건국 이전에는 간도의 동포를 위협하는 적비로 인해 혼돈되고 무질서한 공간으로,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적비의 토벌로 인해 평온한 생활이 가능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혼돈에서 낙토로 만주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사적인 혈연을 버리고 공적인 동포의 안위를 우선시해 건국에 기여한 이춘성 같은 동포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동포의 공로는 만주국 내 조선인을 “지배 민족인 일본인과 피지배 민족인 중국인 사이의 ‘2等 國(公)民’”¹⁵⁾으로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편, 이 소설은 만주국 건국 시기 조선인의 숨은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공산비’ 마저 적비로 돌려세우고, 관동군의 원조와 협력 속에 공산비를 토벌하는 조선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공산비들은 주로 항일 운동을 하던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무리로 철저한 민족 관념과 국가 관념으로 일제에 맞서 싸우던 자들이었다.¹⁶⁾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에 적을 갖고 있는 조선인과 중국인 모두가 포함되는데, 용정에서 여학교를 나온 혜

植民地 農村의 斷想,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p.235.)

15) 尹輝鐸,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歷史學報』 第169輯, 歷史學會, 2001, p.141. 그러나 제만 조선인의 실상은 결코 ‘만주국의 2등 국(公)민’이 아니었다. (尹輝鐸,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p.234.)

16)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김재용 외 저,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pp.44-45. 참고.

련이 스스로 항일 공산비가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석훈은 이들 공산비가 간도의 동포를 괴롭히는 존재이자 완전히 ‘비적’화 되어버린 존재로 그림으로써, 토벌의 명분을 얻고 그들이 토벌된 만주를 ‘낙토’로 묘사한다. 이석훈은 만주 이주 전, 만주국을 국책 선전에 발맞추어 표상해 내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국 건국 직전을 혼란스러운 시대로, 만주국 건국 이후를 평화로운 시대로 보는 시각은 『북으로의 여행』(『國民文學』, 1943. 6)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소설은 이석훈이 간도를 시찰한 후 발표한 소설로, 주인공 ‘철’이 20년 전 고향에서 헤어져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지금은 만주에 살고 있는 숙부 기성(基成)과 그 가족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숙부는 시내에서 1리 정도 떨어진 이민 부락 S촌에 살고 있었다. S촌은 비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목책(木柵)과 흙담의 이중으로 둘러싸여진, 살풍경한”(p.27.) 곳이었다는 점에서 집단부락임을 알 수 있다.

만주에서의 숙부의 형편은 나쁘지 않게 그려져 있다. 사촌 태봉(泰鳳)¹⁷⁾은 작년에 2단 정도의 밭도 자신이 만들었고, 농한기에는 벌목으로 부수입도 있다. 또 북만의 이민부락에서 자랐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젊고 아담한 여자와 결혼도 했다. 만주의 집단부락은 새로운 가정을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태봉이 만주의 이민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철은 태봉의 생활을 부러워하며 “북만의 흙이 될 각오”(p.30.)를 하라며 격려한다.

하지만 숙부네가 처음부터 안락한 생활을 영위했던 것은 아니었다. 만주 건국 직전의 “대단히 혼란한 시대”(p.30.)에는 가족 모두가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도 숙부는 “일본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17) 이석훈의 3남 이승우(李勝羽, 1935~)씨는 ‘태봉’의 실존 모델이 ‘이광훈(李光薰)’으로 이승우 씨에게 당숙뻘(혹은 재당숙)되는 분이라고 한다. (이승우 씨로부터의 전자 우편, 2014. 1. 6.)

굳게 믿고 있었”(p.31.)다. 이에 숙부는 공산당이 된 사람들로부터 습격을 당할 뻔 했으나, 숙부의 덕으로 목숨을 건진 어느 공산당원의 보은으로 소만(蘇滿) 국경의 포크라니치나야¹⁸⁾로 도망갈 수 있었다. 이후 하얼빈에서는 장사로 재물을 축적하는데, 이는 “부끄러운 불법 행위”로 “불의(不義)의 재물”(p.32.)이었기에, 숙부는 다시 무일푼이 되어 만주의 시골로 들어 오게 된다. 이석훈은 만주의 ‘부정업자(不正業者) 숙정공작’도 형상화한 셈인데, 숙부가 부정업을 그만두고 시골로 들어왔다는 것은 숙부의 ‘갱생’을 상징화한다. 숙부는 “과거, 53년 동안 범했던, 여러 가지 많은 죄과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도 이민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북만의 벽지에 바칠” ‘북향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숙부의 만주에서의 삶은 유랑과 고투로 점철된 만주국 건국 전의 혼돈의 세계에서, “비적이 완전히 그림자를 감”춘 질서 잡힌 조화로운 세계에서 영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으로의 여행』은 만주국을 낙토로 그리는 외에도 다양한 친일적 장치들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만주에서 태어나 만주가 고향이 된 태봉의 동생 ‘태훈(泰勳)’의 꿈이 병사라는 점, 이민 부락에서 징병을 맞게 된 청년들이 부락 중앙의 조그만 집회소에서 국어 야학을 한다는 점은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부르짖는 만주국이 들어서고 조선인은 그 구성원이 되었지만, 만주의 조선인은 어디까지나 만주국민이 아닌 황국신민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미나미(南) 총독의 ‘내선일체’에 바탕한 ‘재만 조선인의 총량한 황국신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잘 드러난다. 미나미 총독은 1941년 4월 9일 만주국을 방문하는데, 이는 조선인은 ‘만주인민’이긴 하지만 ‘천황의 신민’으로, 만주에 사는 조선인의 국적을 명확히 정리하기

18) 실제로 이석훈의 삼촌은 “露中國境『포크라니치나야』에서 살고있었”다. (李薰, 『故鄉을떠나든그날의追憶』 逃避行, 『新女性』, 開闢社, 1933. 2, p.75.)

위해서였다. 내선일체가 오족협화보다 높은 가치의 것임을 천명하고, 오족협화론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편입시킨 이유는, 조선에서 곧 시행하게 될 조선인 징병제에 따라 만주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도 징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였다.¹⁹⁾ 이에 태훈은 장래의 희망으로 병정을 꿈꿨고, 만주 이민 부락의 조선인 청년들은 징병된다. 또 징병을 맞게 된 청년들은 집단 부락 속에서 국어 야학에 매진하는 것이다.

또한 「북으로의 여행」은 태봉의 또 다른 동생 ‘태식(泰植)’이 신징에서 재목상을 하는 사람에게 양자(養子)이자 데릴사위로 갔다는 설정을 통해, ‘서양자제도’ 및 내선결혼마저 드러낸다. 태식의 양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소설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血緣」을 통해 일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血緣」(『東洋之光』, 1943. 8)은 주인공의 이름 및 그 외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의 변형은 가해졌지만, 주인공이 북만의 벽촌인 S 이민촌에 살고 있는 숙부댁을 20년 만에 방문하여 숙부의 가족들을 만나고 헤어진다는 큰 틀에서 「북으로의 여행」과 동일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血緣」에서 주인공 ‘용길(龍吉)’의 사촌 ‘용식(龍植)’은 ‘햇토리(服部)’라는 신징에 사는 일본인 형제로부터 자신의 집안에 양자가 되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가고시마현 이쥬잉초(鹿兒島縣伊集院町) 출신의 두 형제는 오래 전부터 신징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에는 18세의 여동생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용식이 그들의 동생이 되어 여동생과 결혼하여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아달라는 것이었다.

조선인의 일본인 양자되기는 1939년 11월 10일 제령 19호 조선 민사령(民事令)의 개정으로 신설된 서양자제도에 의해 가능해졌다. 이는 타성양자(他姓養子)를 인정하지 않던 한국의 관습을 부인함으로써 씨족관념과

19)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 pp.8-12. 참고.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는 이득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에 의해서 아들 없는 일본인은 한국인 총각을, 한국인은 일인 사위를 서양자로 삼고 가독(家督)까지 상속시킬 수 있었다.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일선통혼에 의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혈통의 구별은 해소되고 따라서 일제는 실질적인 황민화의 달성을 얻게 되었다.²⁰⁾ 이석훈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용식이 재만 일본인의 양자가 되는 것으로 그려 넣었다. 임종국은 『血緣』을 분석하며 “일본여자의 남편이요 데릴사위가 됨으로써 이미 일본사람이 되어 버린 龍植. 그 밑에서 태어난 2세는 자기 조상이 조선사람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말겠지. 여기서 우리는 내선일체의, 즉 황민화 운동의 다음 단계가 민족 말살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²¹⁾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하지만 용길은 숙모로부터 용식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훈훈한 기분과 뿌러움을 느낀다. 일본인으로부터 인정받아 그들로부터 먼저 양자가 되어 달라는 청을 받고, 그들의 사랑하는 여동생마저 아내로 맞게 된 용식이 매우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용길과 용식은 다음 날 가족들과 작별하고 함께 하얼빈행 열차에 몸을 싣는데, 야브로니아역에서 열차에 탄 젊은 일본인 병사는 대수롭지 않게 용식에게 말을 건네며 다음과 같이 묻는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 라고, 병사가 물었다.

“가고시마입니다” / 라고, 용식은 대답했다.

“어쩐지, 가고시마 사투리가 섞여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미야자키(宮崎)입니다. 이웃이네요.”

두 사람은 완전히, 의기투합한 듯이 보였다.²²⁾

20) 임종국 저·반민족문제연구소 엮, 『실록 친일파』, 도서출판 돌베개, 2006 (1991), p.215. 참고.

21) 林鍾國, 『親日文學論』, 민족문제연구소, 2003 (1966), p.314.

회화에 재능이 있어 일본어와 중국어를 모국어 화자에 버금갈 만큼 구사하던 용식이었기에 일본인 병사는 그가 조선인임을 눈치 채지 못한다. 일본인 병사가 주하(珠河)역에서 내리자 용식은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을 용길에게 사과한다. 자신이 “선계(鮮系)”라고 굳이 밝히는 것도 결끄러웠다는 것이다. 이에 용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를 어려워할 것 없어. 당당한 일본인이잖아. 게다가 너는 본적이 가고시마니까, 틀림없는 규슈(九州)인이야 너와 나는 사촌이니까, 나도 준가고시마인인가. 헛하하……”

용길은 이렇게 말하며, 밝게 웃었다. / <…>

“<…> 너의 자식은, 완전히 내지인화 되겠지. 너의 자식과 나와는 오촌 관계니까, 일가(一家)나 같다, 나도 어쩐지, 가고시마가 내 고향 같은 기분이 들어. 헛하하……”²³⁾

용길은 이것을 “강자애의 추종이 아니라, 혈연적인 본능 같은 것”(p.95.)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용길은, 용식이 일본인의 양자가 되고 내선결혼까지 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열등감 없이 일본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진정한 내선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용길과 용식은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용식을 통해 용길이 ‘준(準)’가고시마인으로서 느끼는 대리만족은 그것이 ‘준’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한계와 차별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용길은 사촌 용식이 ‘가고시마인’이 됨으로써 그와 친족 관계인 자신 또한 ‘준가고시마인’ 될 수 있고, 그것은 ‘혈연’에 의한 본능이라고 맹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망상’과 ‘맹신’은 용길의 잃어버린 균형 감각의 방증으로 오늘의 독자에게

22) 牧洋, 『血緣』, 『東洋之光』, 東洋之光社, 1943. 8, p.94.

23) 위의 소설, pp.94-95.

‘희극’을 연출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선 간의 동등한 지위를 회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비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가 되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용식은 어떠할까. 이는 양자 입적을 통해 ‘본적’을 바꾸고, 이후에도 ‘결끄러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선인으로서의 본적을 감출 때에만 일본인으로 행세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패전 후 신징에서 가고시마로 돌아간 핫토리 형제와 용식의 삶을 그려볼 때 용식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임을, 해방 후 재일조선인의 삶을 상기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소설의 마지막에서 이석훈은 자신의 근본을 버린다거나 잊는다는 것은 단순한 제도와 작위적 이데올로기 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임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용길과 용식은 하얼빈행 열차 안에서 한 명의 조선인을 상대로 수많은 만주족 남성들이 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한다. 용식은 다수의 만계인이 한 사람의 조선인을 괴롭히는 것에 분노하여 그들을 몹시 꾸짖고 완력으로 쫓아 버린다. 그리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 용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협화는, 상당히 미묘해요.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이, 혹시 혈연에 의해, 유린되기 쉽기 때문이지요”²⁴⁾

‘일본인 집안’에 ‘입적’되어 ‘양자’가 된 용식이지만 ‘조선인’을 위협에서 구출한다. 이는 용식이 개인의 의협심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위 ‘피가 같다’고 상상되는 ‘상상의 공동체’ ‘민족’이 ‘정의’·‘공정’과 같은 사회적 덕목에 앞선다는 용식의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이 장면은 일찍이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된 바 있는데,²⁵⁾ 특히 오무라 마쓰오(大村益

24) 위의 소설, p.95.

夫) 교수는 이 장면에서 이석훈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를 그의 수필 『여행의 득실(旅の得失)』(『內鮮一體』, 內鮮一體社, 1944. 8)에서 언급한 여행의 ‘손실’적 측면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오족의 조화를 파괴하는 만주족을 비판하고 민족협화의 완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석훈은 『여행의 득실』에서 교양 없는 자의 거만한 행동으로 ‘민족협화’라는 ‘만주국의 이상’이 균열되는 장면의 목적을 만주 여행의 손실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문계 작품이란 아무리 작가적 의도(이데올로기적 측면)가 뚜렷하더라도 무의식 및 집단 무의식이 깔려 있는 법”²⁵⁾이다. 그러므로 용식의 행위를 통해 인위적인 민족협화 정책에 선행하는 ‘민족’과 ‘피’의 관념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석훈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대로 소설을 마치고 있지만, 『血緣』은 작품의 표면적 의미와 더불어 이와 배치되는 심층적 의미가 동시에 드러나는 소설이다. 즉, 『血緣』은 용길이 20년 만에 숙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만주를 찾아간다는 설정을 통해 ‘혈연의 끌림’을 서사의 소재이자 발단으로 삼는다. 그리고 서사가 진행될수록 용식이 일본인의 양자로 입적되어 가고시마인이 되었고, 일본인 여성과 결혼까지 할 예정임을 드러냄으로써, 용식과 ‘혈연’적으로 묶인 용길 또한 준가고시마인 될 수 있다는 내선일체를 선전하는 소설로 나아간다. 하지만 소설의 마지막에 용식이 용길에게 전하는 대사는 하나의 아포리아(Aporia)이다.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기차 안 만주족과 같이 자신의 동포를 도와주며 내뱉은 용식의 대사는 자신이 법적으로는 가고시마인이 되었지만 혈연이라는 것은 정의·공정과 같은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

25)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戰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狀況』,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社會科學討究』15卷 3號, 1970. 3, p.421. 白川豊, 앞의 논문, p.161.

26)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141.

을 초월한 개념임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와 제도를 초월한 곳에 자리한 것이 혈연이기에 ‘피’란 무서운 것이다. 결국 『血緣』은 ‘내선일체’를 소설의 표면적 주제로 삼았지만, 조선인의 ‘혈연 관계’, ‘조선 민족’ 등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고 만 소설이다.

3. 만주 이주의 계기와 만주에서의 행적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해 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소설을 즐겨 쓰는 작가였던 만큼 그 이유를 만주로 이주한 이후 발표한 『善靈』(『國民文學』, 1944. 5)을 통해 암시받을 수 있다. 『善靈』은 작가(作家) 이석훈, 작자(作者) 즉 화자(語り手)인 ‘나(私)’,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박태민(朴泰民)’이 의식적으로 구별되어 있는 소설이다. ‘나’는 『善靈』의 ‘박태민’이 『고요한 폭풍(靜かな嵐)』의 ‘박태민’²⁷⁾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한다. 또 ‘나’는 박태민의 모습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동시에 박태민 내부의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인격의 역할도 한다. 『善靈』의 ‘나’를 따라 『고요한 폭풍』 이후의 박태민의 생활을 살펴보면, 박태민은 ‘문인전선시국강연’ 이후 형성된 시국 협력 자세를 꾸준히 관찰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부딪혔으며, 그 때마다 깊은 고뇌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고요한 폭풍』의 박태민은 처음에는 변화하는 시국에 자신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였지만, 조선 문인협회가 주최한 ‘문인전선시국강연’을 계기로 의식을 새롭게 일변하여 적극적으로 시국에 협력한 인물이었다. 박태민은 ‘문인전선시국강연’ 이후

27) 이석훈은 『고요한 폭풍』 3부작-『靜かな嵐』(『國民文學』, 人文社. 1941. 11), 『夜 - 靜かな嵐・第二部一』(『國民文學』, 1942. 6.), 『靜かな嵐(完結篇)』(『綠旗』,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2. 11.)-을 발표한 바 있다.

“진리”²⁸⁾를 찾아 어느 단체에 몸을 던지는데, 이는 시국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 자신의 판단을 확인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단체’는 『고요한 폭풍(완결편)』에서 『생활의 깃발』 잡지를 발간하는 황도주의 교화사업단체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녹(綠)의 생활운동”²⁹⁾을 전개한 녹기연맹(綠旗聯盟)을 가리키고, 『생활의 깃발』은 『녹기(綠旗)』를 가리킨다. 그리고 실제로 이석훈은 ‘문인전선순회강연회’(1940. 11. 30~12. 13)에 참가한 이후,³⁰⁾ 1941년 11월 『녹기』 편집부 촉탁을 역임한 것이다.³¹⁾

『善靈』의 박태민이 그 단체에 들어가자 박태민이 존경하던 ‘윤(尹)’ 선생은 그가 그 단체를 그만두길 희망한다. 그가 이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태민은 자신이 어용단체에 들어가게 된 진심을 몰라주는 윤 선생에게 분함을 느끼고, 절교마저 생각한다. 그리고 “여섯 명의 대가족을 떠맡고, 겨우 직장이 생긴 저 아닙니까. 진리 추구 따위는 공상으로 두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보장되는 만으로도, 큰 것입니다. 당신은 그만둬 라고 무책임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저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p.92.)라고 말하려던 것을 참고 만다. 그는 왜 본심을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 박태민은 윤 선생의 말이 우스워서 대답할 가치도 못 느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존경하는 윤 선생에 대한 예의와 더불어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비굴함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에 박태민은 스스로를 욕하고 괴로워한다.

28) 牧洋, 『善靈』, 『國民文學』, p.88.

29)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50, 역사문제연구소, 2000, p.203.

30) 林鍾國, 앞의 책, p.100. 및 李石薰, 『朝鮮文人協會 主催 文藝報國巡迴講演會報告書』 咸興日記, 『新時代』, 新時代社, 1941. 2, p.148. 참고.

3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인명편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p.920.

그러면 박태민은 그 단체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찾았을까. 단체의 ‘큰 어른’³²⁾이 경성을 떠나 일본으로 가게 되자 송별연을 벌이는데, 그 자리에서 박태민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는 참회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하다못해 이 단체의 주의, 사상의 보급에 정신(挺身)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하고 싶다. 실로 ‘큰 어른’을 나의 아버지로 우러르고, 오로지 ‘큰 어른’이 가르쳐 이끄시는 길로 정진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또 멀리 떠나는 것은, 큰 슬픔이다”(p.96.)며 감상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끝나마자 그는 스스로를 비난한다.

(그 눈물은 대체 무슨 추태냐. 그것은 진실의 눈물인가. 가령 너는 부모에게 불효를 했던 것을 괴로워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서, 과연 아버지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는 것인가. 너는 그 신념에 철저히 할 수 있는가. 응?)하고, 그의 마음속의 목소리는 욕설을 퍼부으며, 동시에 헐박하는 것이었다.

<...> 모두 자신을 『이 거짓말쟁이』 『덜렁이』라고 말하면서, 경멸의 시선을 퍼붓는 듯이 생각되어,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박은 또 다시 심한 고독에 시달렸다. 커다란 단체 속에, 확실히 두 다리로 서 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동지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독해지지 않을 텐데, 그는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³³⁾

인용문을 통해 박태민은 분열과 고독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동족에게도, 진리와 생계를 위해 뛰어난 단체의 이민족과도 섞일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단체 속에서 쉽게 뛰쳐나올 수도 없었다.

32) 녹기연맹을 주도한 이사장 쓰다 사카에(津田榮)를 가리킨다. 그는 “1942년 2월 제1 고등학교 生徒主事 겸 교수로 東京으로 돌아”간다. (鄭惠瓊 · 李昇燁, 『일제하 綠旗聯盟의 활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p.343.)

33) 牧洋, 『善靈』, 『國民文學』, pp.96-97.

그는 자식을 넷이나 뒀으며, 그 중 둘은 다리가 불구였기에 그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막중했던 것이다.³⁴⁾ 이에 그는 전전반측하다가도 아침이 되면 새로이 분기하여 자신의 균열을 스스로 봉합시켰다. 그래서 그는 의식적으로 단체의 행사 및 신궁참배에 참가했다. 이런 행위는 박태민에게 혈로를 개척하는 피가 배인 마음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단체에서 뛰쳐나오고 만다.

그것은 1년이 지난 어느 참배일 날, 사소한 일로 단체의 한 일인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집합 시간에 늦은 박태민은 신전(神殿)에서 단체의 제일 끝에 서 있었다. 그런데 배례(拜禮)가 끝나고, 대열이 키가 큰 선두부터 이열 종대로 물러나자, 키가 큰 자신이 단체의 선두로 뛰어가려는 찰나 나카무라(中村)라는 평의원(評議員)으로부터 “지각한 자가 선두에 서는 게 아니야”(p.98.)라는 큰 소리의 꾸짖음을 듣게 된 것이다. 박태민은 이에 굉장한 수치를 느끼는데, 참배가 끝난 후의 아주 사소한 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주는 나카무라의 행동을 박태민은 악의가 담긴 모욕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뺨덩이 소갈머리 늙은이가 간부인 척하고 설치는 단체 따위는 빨리 탈퇴”(p.98.)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 단체를 나와 버린 것이다. 이로써 박태민은 어용단체와 관계를 끊게 된다.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즉 내선일체가 조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진정한 진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단체에 들어간 것이지만, 단체의 활동을 통해 자신은 그 곳에서 두 발을 뺄 수 없음을 점차 깨닫고, 심지어 단체 안에서 모욕마저 받게 되자 미련 없이 발을 뺀 것이다.

하지만 단체에서 나왔다고 하여 박태민의 내면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박태민은 자신을 단련시킬 마음으로 군의 보도연습에도 참가하

34) 실제로 이석훈은 네 명의 아들 중 두 명의 아들이 교통사고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구였다.

지만,³⁵⁾ ‘아쯔섬(アツツ島) 옥쇄(玉碎)’의 보도를 신문으로 접한 후 크나큰 충격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박태민은 우연히 벌어진 폭력 사건으로 자신의 고녀와 모순을 떨치고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이는 어느 초여름 밤, 박태민이 동료들과 어느 귀빈을 만나기 위해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발생한다.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현(玄)’이 당시 박태민이 신문에 연재하던 『구원의 여상(久遠の女像)』³⁶⁾을 일제에 아침하는 꼴사나운 작품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박태민 역시 신문사 측의 까다로운 주문에 호응해야 했고,³⁷⁾ 여기에 미숙한 자신의 국어(일본어) 실력이 더하여져 치졸한 작품이 되었음을 인정하였기에 현과의 대립을 피했지만, 현의 의식적인 시비와 더불어 동료의 부추김에 의해 자제심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삼 년래 울적했던 감정의 폭풍이, 현을 향해서 왈각한꺼번에 터져 나”(p.103.)은 점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태민은 자신의 내면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싹트는 약한 것’을 떨치게 된다. 박태민의 내면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싹트는 약한 것’이란 신체제 이후 형성된 자신의 신념과 배반되는 여러 현실을 스스로 절감하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생계를 위해 눈 감아 오던 자신 내부의 모든 굴종 의식을 가리킬 것이다. 박태민에게는 너무나도 ‘강한 것’이었던 이것

35) 실제 이석훈은 보도연습에 참가하여 훈련을 받았다. 牧洋, 『[朝鮮軍報道班員の手帖] 行軍』, 『國民文學』, 人文社, 1943. 7, 牧洋, 『[朝鮮軍報道演習報告書] 報道演習に参加して』, 『朝光』, 朝光社, 1943. 7, 牧洋, 『報道演習記』, 『綠旗』, 興亞文化出版株式會社, 1943. 7.

36) 이석훈의 『영원한 여자(永遠の女)』(『京城日報』, 1942. 10. 28~12. 7)를 가리킨다.

37) 실제로 이석훈이 『영원한 여자』를 연재하던 당시 『경성일보』사에서는 내선인 모두를 등장인물로 할 것, 어느 쪽이든 한 쪽만의 악역은 만들지 않을 것, 시대성을 무시하지 말 것, 일어서는 반도의 모습을 드러낼 것, 대중소설 형식으로 할 것 등 다양한 요구를 가하였다. (牧洋(舊名 李石薰), 『國語の新聞小説と作家の言葉』 京城日報 『永遠の女』, 『大東亞』, 大東亞社, 1943. 3, p.148.)

은 현과의 폭력 사태를 통해 ‘악한 것’으로 상대화된다. 그리고 “작은 계기가, 인간을 발분시키는 것처럼, 현과의 그 일이 박을 한 발 더 전진시”켰으며, 박태민은 “나는 이제 어두운 면도 없고, 이면도 없다. 반석과 같이 의연하고 강하며 밝은 인간인 것이다.”(p.103.)라고 단언하게 만든다. 이에 그 해 여름이 끝날 무렵 문학대회의 출석도 거부하고 만주로 떠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륙에 있던 숙부로부터의 급한 전보와 더불어 당시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던 자신의 생계를 대륙에서 찾아보자는 의욕 또한 작용하였다.

『善靈』의 박태민은 당대 이석훈의 행적과 거의 일치하기에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하게 된 계기와 당대 그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의 내면 등을 소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백철과 같이 당대 사실을 수리하여 신체제론에 공명하고 여기에 현실적 생계 문제도 작용하여 녹기연맹에 들어간 이석훈은 황민화소설을 발표하는 동시에 조선의 국민문학을 위해 진력했다. 하지만 이석훈이 자신의 신념을 내세울 때마다 동시에 분열했음을 『善靈』의 박태민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석훈은 해방 후 발표한 『告白』에서 자신이 만주로 간 이유를 “오래도록, 良心을 속이는 自己欺瞞을 스스로 지탱할수 없었”기에 스스로 “『國民文學』의 第一線으로부터 滿洲에로 逃避하는데서 勇敢해지기를 圖謀”³⁸⁾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물론 해방 후에 발표된 글인 만큼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善靈』의 박태민의 상황과 겹쳐보면 이는 거짓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당시 만주는 “조선 내에서의 생활보다는 현실적으로 덜 빈곤했고 정신적으로는 망명객으로서의 자유를 조금은 맛볼 수 있”³⁹⁾는 곳이였기에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이주해간 곳이였다. 더욱

38) 李石薰, 『告白』, 『白民』, p.45.

39)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이 이석훈은 청년 시절 만주 지방을 방랑한 적도 있어 만주는 그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또 그 곳에는 자신의 숙부가 살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한 이유는 녹기연맹에서 내선일체의 모순을 절감한 후, 조선 내에서보다는 정신적으로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게다가 자신의 혈육인 숙부가 있고 스스로에게도 친근한 만주에서 새롭게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석훈은 예정되어 있던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도 불참하고 만주로 가버리고 만다.⁴⁰⁾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한 시점은 1943년 8월로 추정된다. 그것은 1943년 8월 25일부터 3일간 도쿄에서 개최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의 조선측 대표로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불참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의 불참은 조선문인보국회 사무국에서 제공하여 작성된 『국민문학』의 「문보의 페이지」에서 “마키 히로시는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결석을 통고”⁴¹⁾했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글에서 이석훈은 대동아문학자대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던 8월 14일에도 결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의 결석이란 이즈음 그의 심경의 변화를 상징하고, 이 시기 그의 만주로의 이주 가능성을 높게 한다.⁴²⁾

이석훈은 경성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만주로 이주하는데,⁴³⁾ 해방 역시 만주의 신징에서 맞았지만, 1943년 8월 이후 해방까지 줄곧 그곳에서만

p.529.

40) 「朝鮮代表六氏決定 一大東亞文學者大會에—」, 『毎日新報』, 1943. 8. 12, 「文化で結ぶ大東亞—晴れの半島代表決る—」, 『京城日報』, 1943. 8. 12.

41) 朝鮮文人報國會事務局提供, 「文報の頁」, 『國民文學』, 人文社, 1943. 9, p.43.

42) 게다가 이석훈은 「만주의 백계 러시아 문학」에서 신징에서 산지 반년이 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점에서도 그의 만주행의 시점을 1943년 8월로 잡을 수 있다. (在新京 牧洋, 「滿洲の白系ロシア文學」, 『國民文學』, 人文社, 1944. 3, p.36.)

43) 이승우 씨로부터의 전자우편, 2013. 10. 30.

지냈던 것은 아니었다. 만주에서의 그의 정확한 거주지는 알 수 없지만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한 후 조선과 만주를 넘나들며 지냈다.⁴⁴⁾ 학자들마다 이 석훈의 만주 이주 시점이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⁴⁵⁾ 그는 신정의 『만선일보』에서 객원 근무를 한다. 정확한 입사 시기 및 입사 계기 또한 알 수 없지만, 안수길(安壽吉)이 『북향보(北鄉譜)』(1944. 12. 1~1945. 4)를 『만선일보』에 연재하던 무렵에는 편집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⁴⁶⁾ 또 이석훈은 1943년 12월 4일부터 5일에 걸쳐 만주에서 개최된 ‘결전예문전국대회’에도 참가하는데, 조선문인보국회를 대표하여 이 대회에 참가한 주요한(朱耀翰)은 이석훈이 “만주문예가협회에 가입해 조선인 작가로서 크게 활약해 줄 수 있도록 야마다 위원장의 쾌락(快諾)을 받은 일도 하나의 수확”⁴⁷⁾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만주문예가협회에서의 활동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주 후 발표한 몇 편의 잡문을 통해서도 만주에서의 이석훈의 생활과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만주의 백계 러시아 문학』(『國民文學』, 1944. 3)을 통해서도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만주에서도 계속 지속시키고 있었음을, 그리고 백계 러시아 작가 중에는 니콜라이 바이코프를 가장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⁴⁸⁾ 하지만 백계 러시아인들에게 과거 유럽인으

44) 이석훈은 1943년 8월 중순 쯤 만주에 갔지만, 『쑥섬 이야기』의 『후기』에는 “19년 5월, 경성에서, 여행 전에”(p.296.)라고 끝맺어져 있어, 1944년 5월에는 조선에 잠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만주와 조선을 왕복한 그는 1945년 5월 다시 신징으로 갔음을 김송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金松, 『[自傳적 文藝半世紀] 解放前夜와 「白民」시절』 [5], 『新東亞』, 東亞日報社, 1980. 4, p.255.)

45) 윤대석은 1943년 8월로, 김용성은 1944년 연초로 잡는다. (윤대석, 앞의 논문, p.130. 김용성, 『작가 연보』, 이석훈 저·김용성 편, 앞의 책, p.446.)

46) 안수길, 『[文壇交遊記] 나와『龍井·新京』시대』 <끝>, 『대한일보』, 1970. 5. 1.

47) 松村紘一(舊名 朱耀翰), 『決戦下滿洲の藝文態勢—滿洲「決戦藝文全國大會」參觀記一』, 『新時代』, 新時代社, 1944. 1, p.66.

48) 한편 만주에서 그는 바이코프의 소설을 조선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바이코프 原作·牧洋 抄譯, 『密林의生活者』, 『野談』, 野談社, 1945. 1) 이석훈은 일찍이 경성에

로서 가졌던 자부심과 동경은 잊고 이제는 만주국민이라는 현실적 자각 위에 대동아공영권 창출을 위해 힘쓰라고 끝맺음으로써, 만주 이주 후 만주국과 대동아공영권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국색이 가미된 단락은 글의 마지막의 오직 한 단락뿐이다)

그는 화북 문단도 소개한다. 대동아공영권의 통신문 형식으로 발표된 수필 『[共榮圈文學通信] 최근의 화북문단(最近の華北文壇)』(『國民文學』, 人文社, 1944. 6)에서 그는 화북 출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출판되는 문학잡지를 소개한다. 특히 沈啓无 등이 발간하는 문학잡지 『文學集刊』은 외국문학도 소개하고 있고 소개된 작품이 가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시대적인 거리를 피할 수 없다며 비판한다. 또 이석훈은 만주 여성문학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한 우잉(吳瑛)의 글도 초역하여 조선 문단에 소개하고,⁴⁹⁾ 만주의 민요 및 이발의 종류 등도 소개하고 있다.⁵⁰⁾

『전시하의 만주』를 통해서는 그가 신장에 살던 당시 남북만주의 여러 곳을 상당히 여행했음을 알 수 있다.⁵¹⁾ 하얼빈에는 6, 7차례 갔으며 봉천에도 가끔 갔다. 구체적으로 1944년 2월 말에는 하얼빈에, 여름에는 북만주의 일면파(一面坡)에, 초가을쯤에는 동변도(東邊道)로 여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감상하였다. 또 북만주의 신흥촌과 빈강성(濱江省)의 신흥촌(1944년 여름), 그리고 봉천 근처 푸순(撫順) 교외에 있는 이석새(李石塞) 농장 등 조선인 개척지와 조선인 개척민의 농장도 방문하였다.⁵²⁾

서 바이코프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牧洋(舊名 李石薰), 『[來鮮賓客の印象] 京城博物館のバイコフ翁』, 『大東亞』, 大東亞社, 1943. 3.)

49) 吳瑛(牧洋抄譯), 『滿洲女流作家群像—原題『滿洲女性文學の人及作品』—』, 『國民文學』, 人文社, 1945. 2.

50) 牧洋(舊名 李石薰), 『滿洲の話』, 『新時代』, 新時代社, 1944. 5.

51) 牧洋, 『戰時下の滿洲』, 『朝光』, 朝光社, 1944. 11.

4. 만주국 이념에의 경도와 만주 개척의 서사화

마음의 균열로 만주로 이주한 이석훈이었지만 만주 이주 이후에도 시국 협력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만주국의 건국 정신과 정부 구조에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또 만주를 조선인에 의해 개척되어야 할 곳으로 생각했다. 이는 수필 『만주 이야기(滿洲の話)』와 소설 『處女地』에 잘 드러나 있다.

건국정신은, <…>

1, 민족협화 2, 일본과 일덕일심 3, 도의(道義) 세계를 만든다.

일본의 황도정신이란 민족협화의 정신이고, 타민족을 포용하는, 이상세계를 만든다. <…> 일본의 좋은 점을 수용한 동양 도덕을 기초로 해서, 서양식의 번거로운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연히 방임하면, 나쁜 인간이 쓸데없이 들어온다. 또 나쁜 자본가도 온다. 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만주국에는 불량 청년과 테키야(テキ屋)⁵³⁾가 없다. 신문 잡지 기자도 이 이상을 이해할 수 없는 자는, 퇴거 명령을 받는다.

정치는 독창적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회 정치를 취하지 않는다. 전제 군주제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사람은, 정부와 협화회(協和會)의 관계를 보

52) 이와 같은 만주 여행은 이석훈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준다. 특히 ‘실’은 여행 중 ‘민족협화’라는 ‘만주국의 이상’이 균열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라고 한다. 가령, “외지(外地)” (牧洋, 『旅の得失』, 『內鮮一體』, p.36.)의 기차 안에서 교양 없는 자의 거만한 행동을 접할 경우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만주를 ‘외지’로 언급함으로써 오족협화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그 또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외지’라는 단어의 무의식적인 사용은 자신이 제국주의자의 시선에서 만주를 바라봤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주에 대한 이석훈의 착종된 시선은 그를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볼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다)

53) 테키야(てきや, 的屋): 야시(やし, <香具師>(野師))와 같은 말로 제레나 젓날 등에 노점을 차려놓고 구경거리 등의 흥행과 행상을 하는 사람. (北原保雄 編, 『明鏡 國語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2002, p.1655.)

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관리가 모여 만든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협화회는 관리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 이룬 것이다. 협화회는 관리와 민중이 모인 것으로, 권력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을 대신하여 도의가 있다. 그 목표는 선택달정(宣德達情)(위로부터의 덕을 아래로 전하고, 민정(下情)을 위에 알리다)이다.⁵⁴⁾

인용문을 통해 이석훈은 만주국의 건국 정신을 높게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족협화’와 ‘도의 세계’라는 건국 정신은 관동군이 만주국을 탄생시키기에 앞서 재만 일본인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그에 부응하여 건국 운동에 뛰어든 재만 일본인들이 만주국에 바란 다양한 ‘꿈’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특히 다치바나 시라기(橘樸, 1881~1945)에 의한 ‘왕도’ 개념과, 만주청년연맹에 의한 ‘민족협화’는 신국가 지도이념으로 높이 선전되었지만, 다치바나가 중시했던 농민 자치, 분권적 자치국가라는 논점은 국가의 제도화 속에서 지워져 갔다. 더불어 신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자치지도부 역시 만주국 탄생 이후 폐지된다.(1932. 3. 15)

한편,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는 관동군의 만주국 건국 목적에서 이탈하여 만주국의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주장하고 관동군에 의한 정책 지도가 방기될 것을 주장하여 ‘만주국협화회’를 탄생시켰다. 만주국협화회는 관동군을 대신해 새롭게 만주국의 최고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유주의에 의한 입법의회도 아닌 정치적 단체, 통제주의에 따르는 민중의 대표기관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이시하라가 만주국협화회를 장래의 주권자로 설정한 것은 3천만 대중을 장악하여 만주국을 이상적 낙토로 만들고, 진정한 일만협화, 일지친선을 이룩해야지만 미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⁵⁵⁾

54) 牧洋(舊名 李石薰), 『滿洲の話』, 『新時代』, p.73.

인용문에서 이석훈이 언급하고 있는 만주국의 ‘독창적 정치형태’ 즉, ‘정부와 협화회’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만주국협화회는 ‘임원적 측면’과, 국고 보조금 충당 등의 ‘경비적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관동군과 만주국 정부의 공인하에 결성된 상의하달(上意下達)식 관제기관이었다.⁵⁶⁾ 이석훈 역시 만주국협화회의 목표가 ‘선덕달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상의하달식 관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즉 이는 관동군의 지도원조에 의지함으로써 관동군과는 선을 긋고자 한 ‘만주협화당’의 결성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재야에서 재만 3천만 민중의 의식 통일을 도모한다던 초심마저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⁷⁾

하지만 이석훈은 만주국의 건국이념인 민족협화에 기대를 걸고 여기에 만주 개척 정신까지 가미한 소설 『處女地』(『國民文學』, 人文社, 1945. 1)를 발표한다. 『處女地』는 장편소설로 기획된 작품이었으나 1회만 연재된 탓에 이석훈이 말하고자 한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주 개척 문제를 취급하려 했음을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 『處女地』는 만주사변 발발 3, 4년 전을 배경으로 천주교 신자 이춘추(李春秋)가 식솔들을 이끌고 북만의 K촌으로 이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간도 지방으로 건너와 모든 것에서 실패한 이춘추는 하얼빈에서 K촌의 마틴(マルタン) 신부를 만난 후 마틴 신부의 인격에 감화됨은 물론, K촌이 천주교 마을이라는 점, 수전가경지(水田可耕地)가 많다는 점에 이끌려 K촌으로 간다. 그리고 교회의 토지를 빌려 개척하고 싶다는 포부를 K촌 천주교회의 중국인 신부 조방중(趙芳

55)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 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10 (2009), pp.68-74, pp.106-129, pp.189-199. 참고.

56) 위의 책, pp.198-199.

57) 위의 책, p.199.

仲)에게 피력한다.

저는 드디어 이곳에, 왕성한 야망을 품어, 이번에 결심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저는 장래, 가능하다면 이 땅에서 가난한 동포를 모아, 이곳에 훌륭한 농촌—— 굳이 이상향이라든가, 낙원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 저는 이 땅에 뼈를 묻을 각오로 왔습니다.⁵⁸⁾

조 신부는 밥그릇밖에 지닌 게 없는 이국인(異國人) 신도 이춘추 가족을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유력자들을 소개해 준다. 사정을 알게 된 중국인 유지들은 “미간지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당신들의 손으로 척척 개간해 주시구랴”(p.49.)하며 살 집까지 마련해 준다. 이웃들로부터의 냉대를 각오하고 있던 이춘추는 생각지도 못한 일에 감격한다. 하지만 발농사를 주로 하는 만주족과 논농사를 주로 하는 조선인 간의 만주에서의 갈등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훈은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조선인이 북만에 정착하여 조선인의 손으로 미개간지가 개척될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벼농사의 천재”(p.57.)인 조선인 농민들과 종교에 의해 감화된 착한 중국인들과의 민족협화 속에 조선인에 의한 만주 개척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전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조선인과 이를 이용하여 수전 경작으로 자신의 수익을 높이려 한 중국인 지주로 인해 중국인 소작농은 점차 소작 경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이는 조선인 소작농에 대한 중국인 소작농의 반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⁵⁹⁾ 그러나 『處女地』에는 이에 관한 고려 없이 조방중 신부의 사해동포라는 종교적 이념

58) 牧洋, 『處女地』, 『國民文學』, 人文社, 1945. 1, p.48.

59) 尹輝鐸, 『滿洲國』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殖民地 農村的 斷想』, pp.223-224. 참고.

속에 민족협화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교묘히 은폐시키고, 조선인에 의한 만주의 토지 개척을 정당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석훈이 만주로 이주한 후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경도된 이유는 그가 조선을 떠나 만주에서 하나의 ‘에스닉(ethnic)’으로서 살아가야 했기에 ‘민족협화’ 혹은 ‘오족협화’가 관념적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를 포함한 재만조선인들은 명백한 ‘에스닉 그룹’이었고 이주자는 새로운 이주지에서 하나의 ‘에스닉’으로서 존재하며, 다른 ‘에스닉 그룹’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⁶⁰⁾ 만주국 국민이자 만주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종족으로서 살아나가야 했을 재만 조선인들의 이해관계를 헤아리며 「處女地」를 바라보면 이석훈이 왜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경도되고 이를 소설로까지 형상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5. 정세 변화와 자기 점검

이석훈이 만주에서 발표한 소설은 그 양과 내용에서 조선에서 만주를 소재로 발표한 작품과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이 주목된다. 우선 만주로 이주한 이후 발표된 작품 18편⁶¹⁾ 중 자신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은 겨우 세 편(「善靈」, 「쑤섬 이야기」 제1부, 「處女地」)에 그치고 있다.⁶²⁾ 그

60)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6 (2005), pp.141-142, p.156.

61)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지면상 작품명만 들) 「蓬島物語」, 「文學鼎談」, 「母の告白」, 「男の征く所」, 「京城の街」, 「母のよろこび」, 「滿洲の白系ロシヤ文學」, 「新時代の母性」, 「善靈」, 「滿洲の話」, 「蓬島物語」, 「最近の華北文壇」, 「旅の得失」, 「戰時下の滿洲」, 「金鍾漢の人及作品」, 「處女地」, 「密林の生活者」, 「滿洲女流作家群像—原題『滿洲女性文學の人及作品』—」 등.

62) 1943년 9월에는 「쑤섬 이야기(蓬島物語)」(『國民文學』, 人文社), 「어머니의 고백(母

외 몇 편의 수필과 평론 그리고 번역을 발표하였는데, 『쑥섬 이야기』를 1945년 3월 출간한 이후로는 필자에 의거하는 한 해방 때까지 아무런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작품량은 문인에게 있어 절필 상태를 의미하고 실제로 그는 1945년 3월 이후 절필한다.

그리고 만주 이주 후 발표한 작품을 살펴보면 만주국의 이념에 정도되어 시국에 협력하는 자세는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조선에서 발표한 작품과 같이 노골적으로 일본주의를 드러내거나, 황국신민화를 노래하는 소설은 발표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내선평등에 기대를 걸었던 그가 내선일체의 모순을 본 후 만주로 이주한 만큼, 만주에서 내선일체를 노래하거나 일본주의를 예찬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국책에 협력하는 소설쓰기를 그만두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만주에서 ‘에스닉’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만큼 만주국의 이념에 정도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여기에는 그가 4명의 아이를 둔 가장이었던 만큼 생계를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45년 3월 이후 절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4명의 아들을 둔 이석훈은 그 후 어떻게 생계를 영위했을까. 이광수는 제3회 대동아 문학자대회(1944년 11월 12일부터 3일간)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의 난징(南京)을 방문하는데, 이때는 이미 일본의 패색이 짙어, 이광수는 난징에서

の告白)』(『朝光』, 朝光社)이 발표되지만, 이는 만주 이주 전 조선에서 투고가 끝난 작품이 9월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월간지에 게재할 원고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또 1943년 11월에 발표된 소설 『어머니의 기쁨(母のよろこび)』(『新太陽』, 新太陽社)은 이후 단행본 『쑥섬 이야기』에 『최룡과 그의 어머니(崔龍とその母)』로 개제되는데, 『최룡과 그의 어머니』 말미에는 집필일이 1943년 7월로 명시되어 있다. 『쑥섬 이야기』의 「후기」에는 『최룡과 그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쁨』을 제목만 바꾸어 게재했다하므로, 집필일 1943년 7월은 『어머니의 기쁨』의 집필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44년 4월에 발표된 『새時代の母性』(『放送之友』, 朝鮮放送出版協會)은 『어머니의 기쁨』의 조선어 번역본이다. 그러면 만주 이주 후 본격적으로 창작된 이석훈의 소설은 『善靈』, 『쑥섬 이야기』 제1부, 『處女地』의 세 편 뿐이다.

카이로 선언(1943. 11)을 접하는 등 일본의 패망 기운을 눈치 챘다고 한다.⁶³⁾ 그러므로 1945년 3월 이후 일본의 패망 분위기는 더욱 우심했을 것이며 만주에서 언론 기관에 종사하고 있던 이석훈 또한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⁶⁴⁾ 이석훈의 절필은 작가적 감각과 언론인적 예지능력이 작동하여, 과거에 대한 자기 점검과 패망 후의 자기 위치에 대한 고민이 맞물린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만주에서의 이석훈의 생계는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그 힌트는 소설 『異郷』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8월 8일 만주국 수도 신징이 소련군 비행대의 공습을 받자 이를 계기로 주인공 조선인 남자가 신징을 탈출하는 이야기인 『異郷』은 1946년 3월 『민심(民心)』에 이금남(李琴男)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다.

‘이금남’이 누구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필자는 그가 다음의 이유로 이석훈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우선 소설의 주인공이 만주 신징의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지식인이라는 점, 그의 부인과 아들들은 모두 경성에 있고 자기 혼자 신문사 사택에 기거한다는 점, 술을 원래 못한다는 점, 신징을 탈출한다는 점 등이 이석훈의 이력과 거의 일치한다. 이석훈은 만주 신징에서 해방을 맞은 후 귀국하여 “9월, 서울 종로구 필운동 2번지 자기 집으로 돌아와 침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러시아 작품과 일어 작품들을 번역하여 생활을 꾸려갔”⁶⁵⁾는데, ‘이금남’은 당시 이석훈이 사용한 필명 중 하나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석훈의 아호 역시 한자는 다르지만

63)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pp.352-354.

64) 하지만 이석훈의 제2의 국어(일본어) 창작집 『쑥섬 이야기』는 1945년 3월에 출판된다.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는 이때 『쑥섬 이야기』가 출판된 이유는 서울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인세라도 건져 보려한 이석훈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은 아니었을까.

65) 김용성, 「해설: 민족사의 비극적 궤적을 따라간 삶과 문학」, 이석훈 저·김용성 편, 앞의 책, p.442.

금남(琴南)이었고, 이석훈은 자신의 아호로도 작품을 발표한 바 있다.⁶⁶⁾

이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이금남이 이석훈의 해방기 필명 중 하나이고 이금남 소설의 주인공 역시 이석훈의 분신이라 추정한다면, 소설을 통해 이석훈은 『만선일보』 재직 당시 사설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인공은 패전이 짙어가는 무렵에는 쓰기 싫은 내용의 사설을 일본인 주간의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써야 했다. 일본인 주간은 “소련의 적색제국주의를 폭로하는……저－흑룡강물속에 수천의 청국인을 모라넣은 그잔학무도한 비화를 테－마로해서 군의 예리한 비판”(p.135.)을 담아 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주인공은 겉으로만 대답할 뿐 따르지 않지만, 이를 통해 아직 확인된 바 없는 이석훈의 『만선일보』에서의 사설 집필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석훈이 사설을 집필했다면 신문사로부터의 최소한의 수입에 의지하여 만주에서의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주지는 신문사 사택이었을 것이다.

한편, 소설은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가 행해져 일본의 패전 기운이 감돌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주인공은 신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관동군 및 재조 일본인들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가소롭게 생각하고, 동시에 “광명스런 새국면”을 바란다. 신문사 공장의 동포 장정 두 사람과 40이 넘는 일본인이 소집을 당하자 그는 그들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가엾은 어린 송아지”로 여기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조선인다운 죽음을 하자. 놈들을 한놈이라도 죽이고 죽어야 내눈이 감길것이다. <…> 어찌 만리이역에서

66) 琴南, 『題材の開拓 新人의出現을要望』, 『毎日新報』, 1940. 9. 20, 琴南, 『誤植과雜誌 當事者の注意が必要』, 『毎日新報』, 1940. 9. 25, 琴南, 『南으로가는젊은이』, 『野談』, 野談社, 1942. 8. 한편, 이승우 씨 역시 이금남을 이석훈의 가명으로 확인했다. 본명을 변경(變改)하는 일은 요즘에도 왕왕 있는 일이며 더군다나 소설의 내용이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전자우편, 2013. 10. 9.)

『개죽업』을 한단말이냐!”라고 각오한다. 또 소련비행기가 어서 신징을 공격해 “놈들을 쳐때려 부”(p.145.)쳐주기를 희망한다.

물론 이금남은 이석훈이 아닐 수도, 나아가 『異郷』의 주인공 역시 이석훈의 분신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설령 이석훈이라 할지라도 작품의 발표 시기가 해방 후인 만큼 자신의 만주에서의 이력을 포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금남’이라는 작가의 이름 및 『異郷』의 주인공의 이력, 그리고 주인공의 해방 직전의 반일정신은 이석훈의 아호 및 이석훈의 이력, 그리고 만주로 이주한 후 발표된 이석훈 소설의 양 및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전혀 무관하다고만도 여길 수 없다.

어쩌면 그는 1945년 3월 이후 절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이 아직 발굴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대 재만 조선인의 실상 및 이석훈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만선일보』의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1945년 3월 이후, 조선도 아닌 만주에서, 그것도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그는 분명 일본의 패망 기운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그로 하여금 자기 점점의 시간을 갖게 하였을 것이며, 결국 뒤늦게 작동한 역사적 균형 감각이 그를 절필의 수순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일제 말기 만주로 이주하기 전 만주를 소재로 발표한 이석훈의 이중어 소설을 분석하고, 만주로 이주하게 된 계기, 만주로 이주한 후의 이석훈의 생활과 사상을 그의 이중어 소설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만주 이주 전과 후에 발표된 소설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1945년 3월 이후 절필한 이유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만주를 소재로 하여 조선에서 발표된 소설에서는 당대 만주와 만주국을 바라보던 일제의 논리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만주는 만주국 건국을 전후하여 각각 ‘혼돈’과 ‘낙토’의 공간으로 표상되어 있었고(『李大將』, 『북으로의 여행』), ‘오족협화’와 ‘민족협화’라는 건국이념에 무색하게 ‘선만일여’와 ‘내선일체’의 논리가 통용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북으로의 여행』) 그리고 서양자제도 및 내선결혼 등 황민화 정책 또한 소설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북으로의 여행』, 『血緣』)

하지만 『녹기』의 편집부에서 활동하며 황민문학을 생산하고 동시에 조선의 국민문학 운동에 진력하던 이석훈은 조선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만주로 이주했다. 이를 『善靈』을 통해 추측해 보면 녹기연맹에서 내선일체의 모순을 절감한 그가 조선보다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게다가 숙부가 거주하고 있고 자신에게도 친숙한 만주에서 새롭게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만주로 간 이석훈은 만주국 국민이자 하나의 에스닉으로서 살아가야 했던 만큼 ‘민족협화’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경도되었고(『만주 이야기』), 만주 개척 문제를 소설(『處女地』)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반도에서 발표한 작품과 같이 노골적으로 일본주의를 드러내거나 황민화를 노래하지는 않았다. 반도에서 내선일체의 모순을 본 후 만주로 이주한 만큼 만주에서 내선일체를 노래한 작품은 집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주의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그는 점차 일본의 패망 기운을 느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정세 변화는 뒤늦은 자기 점검과 이성적 균형 감각의 회복을 가져와 1945년 3월 이후 절필의 수순을 밟게 된다. 그의 뒤늦은 역사적 균형 감각의 회복은 이석훈의 필명으로 여겨지는 해방 후 이금남의 소설 『異郷』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해방 후 이석훈의 삶과 이금남 외 다양한 필명으로 이루어진 그의 문학은 철저한 고증 및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장을 달리해서 서술해야 한다. 이는 본고의 범위를 뛰어넘기에 차후의 과제로 약속하며 이상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京城日報』, 『國民文學』, 『內鮮一體』, 『綠旗』, 『大東亞』, 『대한일보』, 『東洋之光』, 『每日申報』(『每日新報』), 『民心』, 『放送之友』, 『白民』, 『三千里』, 『新東亞』, 『新時代』, 『新女性』, 『新太陽』, 『野談』, 『朝光』, 『朝鮮日報』, 『中央』

李石薰, 『黃昏의 노래』, 漢城圖書株式會社, 1936.

牧洋, 『蓬島物語』, 普文社, 1945.

이석훈 저 · 김용성 편, 『이주민 열차(외)』, 종합출판 범우, 2005.

2. 논문 및 단행본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41, pp.352-354.

김재용,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김재용 외 저,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도서출판 역락, 2004, pp.44-45.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 pp.8-12.

서승희, 『일제말기 소설과 ‘자기’의 정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윤대석 역,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2010, pp.68-74, pp.106-132, pp.189-199, pp.223-224.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2, pp.130-132.

_____,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p.33.

尹輝鐸, 『<滿洲國>의 ‘2等 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歷史學報』第169輯, 歷史學會, 2001, p.141.

_____,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殖民地 農村의 斷想』,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pp.223-224, pp.234-235.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50, 역사문제연구소, 2000, p.203.

林鍾國, 『親日文學論』, 민족문제연구소, 2003 (1966), 100, p.314.

임종국 저 · 반민족문제연구소 엮, 『실록 친일파』, 도서출판 돌베개, 2006 (1991), p.215.

鄭惠瓊 · 李昇燁, 『일제하 綠旗聯盟의 활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한국근현대사학

- 회, 1999, p.343.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2004, p.529.
- 진영복, 『일제말기 만주 여행서사와 주체 구성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3호, 대중서사학회, 2010. 6.
- _____, 『재만조선인의 내선일체 담론과 균열－이석훈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韓民族語文學』 第58輯, 한민족어문학회, 2011.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인명편 2(ㄷ～ㄹ), 민족문제연구소, 2009, p.920.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6 (2005), pp.141～142, p.156.
- 大村益夫, 『第二次世界大戦下における朝鮮の文化状況』,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編, 『社會科學討究』 15卷 3號, 1970. 3, p.421.
- 白川豊, 『李石薰(牧洋) 作品考－資料整理を中心に－』, 『朝鮮學報』 第160輯, 1996. 7, p.161, p.188.
- 北原保雄 編, 『明鏡 國語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2002, p.1655.

Abstract

Lee Suk-Hoon's Bilingual Novels with 'Manchuria' for
Background and His Activities in Manchuria

Shin, Mi-Sam · Roh, Sang-Rae

This study is to analyze Lee Suk-Hoon's bilingual novels with 'Manchuria' for background at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is activities in Manchuria after his going to Manchuria in August 1943. In the novels published in Chosun whose subject matter was Manchuria, the logic of Japanese colonialism for Manchuria and Manchukuo was reflected fully. Manchuria was represented as a place of 'Heavenly land' and chaos before and after establishment of Manchukuo. Manchuria was set as a place in which the logic of the Unity of Chosun and Manchuria, the Unification of Japan and Chosun was in common use regardless of the founding principles, the Harmony of five races and the Harmony of ethnic groups. Additionally, the Japanization policy was revealed in the novels plainly.

Keenly aware of the contradiction of the Unification of Japan and Chosun in Nokki Renmei(Green Flag League), he moved into Manchuria in August 1943 where his uncle resided and he felt freer than in Chosun. His move was to gain a livelihood newly in the familiar place Manchuria as in his novel *Sunyoung*(善靈). He in Manchuria did not publish the Japanization literature which revealed the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urge for military service openly unlike in Chosun. However, he inclined to the founding principles of Manchukuo and wrote a novel to shape up the exploitation of Manchuria.

He who played a role in the newspaper company of Manchuria noticed perhaps the defeat and the collapse of Japan, which let him know the change in the state of affairs and led to a belated self-inspection. His recovery in the historical sense of balance can be found in the novel *Ihyang*(異郷) of Lee, Geum-Nam published after the Korean liberation, whose name was regarded

as Lee, Suk-Hoon's pen name. His ending up in his writing career after March 1945 was a scheduled step.

Key Word : Manchukuo, Heavenly land, Cooperation, Division, Harmony of ethnic groups, Harmony of five races, Exploitation, Self-inspection

신미삼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9630-1105

전자우편 : shinmisam1105@hanmail.net

노상래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810-2120

전자우편 : yunc82@ynu.ac.kr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